

멋쩍은 NH보험... NH지주·보험권 好실적 속 '부진'

(손해보험·생명)

당기순익 168% 증가한 8598억
은행·증권 전년비 487·48% 증가
손보·생명은 각각 25·45% 감소



오병관 NH농협손보 대표이사 서기봉 NH농협생명 대표

NH농협금융이 지난해 순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보험 자회사인 농협손보와 생명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다. 각 사 모두 순익을 시현했지만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실적으로 농협금융의 호조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최근 새롭게 선임된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와 지난해 12월 연임한 서기봉 농협생명 대표의 올 한해 경영성과가 농협금융 성장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금융은 전년 3210억원 대비 무려 167.9%나 증가한 85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초과했다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과 증권이 주도했다. 두 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86.9%, 48.3% 증가한 6521억원, 3501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각각 8715억원, 363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농협손보와 생명은 각각 265억원,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 사 모두 24.9%, 44.7%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순익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7

조8323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63% 늘어난 3조9543억원, 손보사는 12% 증가한 3조378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근 주주 배당 등 실적 잔치에 나섰지만 농협손보와 생명은 기대 밖 실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당장 농협손보의 경우 농협 네트워크 중심의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크고 총자산 역시 10조원을 넘지 못하는 등 ‘농협’ 이름값 대비 업계 경쟁에서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농협손보의 자산규모는 9조 5088억원으로 업계 9위에 그친다. 최근 들어 보장성·일반보험 등 영업을 강화하며 기존 정책성보험 판매에서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모양새지만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새롭게 취임하며 “지역 농축협을 근간으로 대면 채널 및 다이렉트 채널 등 채널

별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의 판매 강화는 물론 수익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생명은 그간 저축성보험 판매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만큼 지난해부터 보장성보험 강화를 통해 체질변화에 나서고 있다. 서기봉 농협생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 체질 개선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1년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이 낮은 등 수익성 확대 고민이 대두된다. 지난해 3분기 농협생명의 ROA는 0.2%로 상위 10개사 평균 0.7% 대비 0.5%포인트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금융 보험 자회사의 자리가 위태롭다”며 “올 한해 뚜렷한 경영실적을 내기 위한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실적 잔치 은행들... 영업익 80% '이자수익'

4대지주 작년 당기순익 10조 육박

예대마진 위주 영업 개선 요구에도 과도한 이자이익 쏠림 현상 여전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성적을 내었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대출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이 늘어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9조 7787억원으로 전년(7조 5249억원) 대비 29.95%(2조 2538억원) 증가했다.

왕좌의 자리는 KB금융이 차지했다. KB금융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전년보다 54.5% 증가한 3조 3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8년 지주사 출범 이래 처음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아쉽게 '3조 클럽' 입성을 놓쳤다. 신한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2조 9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하나금융지주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순익 2조원대에 진입했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 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우리은행도 전년보다 20% 늘어난 1조 512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4대 금융지주(은행)가 10조원 가까운 순익을 낸 건 가계대출 중심의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덕분이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4대 금융지주(은행)의 2017년 연간 실적)

(단위: 억원)

| 금융사 | 당기순이익 | | | 이자이익 | | |
|-----|--------|--------|--------|---------|---------|--------|
| | 2017 | 2016 | 증감률(%) | 2017 | 2016 | 증감률(%) |
| KB | 33,119 | 21,437 | 54.50 | 77,100 | 64,025 | 20.40 |
| 신한 | 29,179 | 27,748 | 5.20 | 78,431 | 72,054 | 8.90 |
| 하나 | 20,368 | 13,451 | 53.10 | 51,095 | 46,420 | 10.10 |
| 우리 | 15,121 | 12,613 | 20.00 | 52,206 | 50,195 | 4.00 |
| 합계 | 97,787 | 75,249 | 29.95 | 258,832 | 232,694 | 11.20 |

/각사

지난해 이자이익은 25조 8832억원으로 지난 2016년 이자이익(23조 2694억원)보다 11.2%(2조 6138억원) 늘었다.

KB금융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7조 7100억원으로 전년(6조 4025억원) 대비 20.4%(1조 3075억원) 늘었다. 하나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4조 6420억원)보다 10.1%(4675억원) 늘어난 5조 1095억원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연속으로 이자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연간 이자이익은 7조 8431억원으로 전년(7조 2054억원)보다 8.9%(6377억원) 늘었다. 신한은행도 4분기 연속 이자이익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 이자이익은 1조 3440억원 규모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이자이익도 5조 2206억원으로 전년(5조 195억원) 대비 4.0%(2011억원)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식

으로 이익을 올렸다. 그 결과 전체 영업익 가운데 이자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86.3%로 가장 비중이 크고 국민은행(83.9%), 우리은행(80.6%), 하나은행(76.4%) 순이다. 여전히 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줄곧 은행들의 '예대마진 위주 영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최종주 금용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담보대출 위주의 전담포식 영업”을 금융권 적폐로 꼽으며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하는 금융 산업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 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NH통합IT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 비상근무 직원들 격려

이대훈 NH농협은행장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통합IT센터를 찾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1일 밝혔다.

NH통합IT센터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과 거래집중에 대비한 시스템 증설을 실시했다.

또 비상근무를 실시해 주요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거래집중 등의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행장은 “설 연휴에도 고객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연휴에 비대면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만큼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장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객행복센터(콜센터)도 방문해 설 연휴 비상근무 계획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숨은보험금 8310억원 주인 찾아

금융위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성과

계약자가 모르고 찾아가진 못한 '숨은 보험금' 8310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6주 만에 전체 숨은 보험금의 11%가 주인을 찾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약 8310억원(59만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자들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약 7조 4000억원(900만건)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후 6주 만에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확인했으며, 내보험 찾아줌 개시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규모는 전체 숨은 보험금의 11.2%(83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중도보험금이 4503억원(40만건) ▲만기보험금이 2507억원(6만건) ▲휴면보험금이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이 461억원(4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해 소비자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보험사들이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채신화 기자

내아이 연금저축펀드 '설 오는' 이벤트

KB국민은행, 가입금액따라 쿠폰 제공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아이 연금저축펀드계좌 '설 래(來)'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내아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경품 추첨을 통해 동요·동화 컨텐츠와 영어 스피킹 기능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 무료 증여신고 대행서비스를 3월 말까지 제공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정서·행동, 성격강점, 학습전략 검사 등 온라인

인적성검사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KB내아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의 가입시점을 앞당겨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미리 준비해 주고, 성년이 되면 자녀가 스스로 연금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자산관리에 최적화된 TDF(Target Date Fund)로 운용되며, 어릴 때부터 연금을 미리 준비해 '연금수저'를 자녀에게 만들어 준다는 상품컨셉을 담고 있다.

TDF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따라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낮은 보수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연금자산 운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녀를 위한 연금준비는 소액이더라도 빨리 시작해 장기투자를 통한 눈덩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뱃돈으로 가입해 준 'KB내아이 연금저축펀드계좌'가 자녀를 위한 올해 '첫 선물'이자 '평생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